

# “정책 시행 앞서 현장의견 수렴”

### 서거석 교육감, “새 정책 추진 과정서 절차상 소홀” 입장문 통해 사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사진)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등 절차상 소홀했던 점을 사과했다.

서 교육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혁신을 넘어서 미래교육으로 참학력을 넘어서 학력을 증진하라”는 것이 지난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열망이자 서거석 교육대전환의 핵심 내용”이라고 전제하고 “혁신학교는 지난 12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서 성과는 확산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은 계속되며 혁신에 미래를 더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이제 참학력이나 학력 이야기가 잡히는 시대는 지났다. 참학력은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기초·기본학력의 토대를 탄탄히 하고 그 위에서 비판적사고력, 창의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인문학적 소양, 예술적 감수성, 자기주도성 등 미래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교육감은 “혁신에 미래를 더하고 참학력을 학력 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자유학기제 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의견수



렴이 부족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가감 없이 지적하며 학교현장의 존중을 촉구한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에게 감사한다”면서 “학교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실행에 앞서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절차와 취지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실현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대 해상풍력수산업사업단 포르투갈 수산양식 회사 방문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수산업사업단(단장 수산생명의학과 박경일 교수)은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양식장 개발과 수산자원 증강사업의 핵심 기술인 외해 교육용 수산양식 관리 기술 개발의 선두 사업자인 포르투갈 Oceanic Fresh Oseos이라는 프레스코사를 방문하여 외해 수산양식 현장 실습과 군산대학교와 외해 수산양식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외해 수산양식은 연안 양식이 처한 환경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정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빠른 유속으로 인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양식 대상종의 관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양식 선진국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시야노 프레스코사는 지난 7년간의 연구개발 결과 포르투갈 남부 라고스 인근 해역에서 우리나라 바지락과 유사종인 *Venerupis comigata*(유럽 바지락)를 대량으로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2년간 수확식으로 양식한 패류의 출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패류 종자 생산과 양식에 관한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최초로 상업적 규모의 바지락 수확양식에 성공했다.

오시야노 프레스코 사의 외해 패류 양식 사업은 빠른 성장과 상품의 우수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올해 초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사무총장인 Qu Dongyu(취동위) 박사가 본 사업장을 공식 방문할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구호 외치는 공공성장화전북교육네트워크. 공공성장화전북교육네트워크 관계자들이 8일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촉구 및 박근혜 교육부장관 시뮬레이션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장관은 취임 34일만에 사의를 표했다.

## 도교육청, 권역별 입시설명회... 13일부터

### 전주·군산·익산·김제 등서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대비 지역별 수험생들에게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권역별 입시설명회가 개최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별 수험생들의 지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전주에서만 실시하던 ‘수시지

원 전략 입시설명회’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고3 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북 대입 진학지도지원단 연수지원팀 강사들과 대학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대비 전북권 및 수도권 대학 등 지원 전략 방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지역별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전주: 13일 오후 2시~5시 10분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
- △군산: 18일 오후 7시~9시 10분 군산대학교 이기터미움
- △익산: 20일 오후 2시~5시 원광대학교 프리인포 컨퍼런스홀
- △정읍: 18일 오후 7시~9시 10분 정읍시여술회관
- △남원: 17일 오후 7시~9시 남원교육지원청 시청각실
- △김제: 18일 오후 7시~9시 10분 김제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

/김재훈 기자

## 아시아 대학과 자매결연 AUEA 구체화

(아시아교육연합)

### 전북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학들과 협약 체결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 대학의 국제교류 확장 새 물결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아시아교육연합(AUEA)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아시아 대학들과 자매결연 확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아시아 대학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그간 코로나19로 침체돼 있었던 전북대 국제교류 확장에도 새로운 물결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는 최근 이재백 교학부총장과 안문석 국제협력본부장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주요 대학들을 직접 찾아 인·물적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을 약속하며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서 안정적인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실용적 응용사회과학 중심 교육기관인 싱가포르사회과학대학교(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SUSS)와 공식 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양 대학은 ‘Impact Challenge’라는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스타트업 단기 프로그램 시행에 뜻을 같이 했고 장기적으로 대학원 복수학위 시행을 위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환 학생을 위해 상호 대학 간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북대학교가 최근 싱가포르사회과학대학교와 공식 협정을 맺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또한 34개 캠퍼스에 15만 명 이상의 학생이 수학하는 말레이시아 최고 규모의 말레이시아 마라공과대학교(Uiversiti Teknologi MARA (UiTM))을 해 20주년을 맞은 툰쿠아블라만대학교(Universiti Tunku Abdul Rahman, UTAR) 등과도 공식 협정 체결을 통해 각종 인·물적 교류 및 공동교육 프로그램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라공과대학에서는 이날 MOU 서명식에는 마라공과대학 Hajah Roziah Mohd Janor 총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모두 함께 해 미래 협력을 논의하고 대화 곳곳을 견학했다.

또한 이재백 부총장은 툰쿠아블라만 대학의 개교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영상 촬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

고 공고한 협력도 논의하는 등 대학 간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선 지난 6월에도 전북대는 조기환 연구부총장이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을 찾아 MOU 체결을 통한 미래 협력을 논의했고, 전북대의 비대면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이재백 교학부총장은 “우리대학은 학생 교육 자체를 세계와 공유하는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아시아에 주요 대학들과 교육연합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집체력이 무궁무진한 아시아 대학들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 속 인재로 커나가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는 전라북도 간호조무사회 후원을 받아 6일에 5개국 40여 명의 대상으로 이달 17일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제 전주는 저의 고향’

###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졸업 축하·격려 나서 전북 간호조무사회 후원 받아 밥 한끼 사랑나눔

전주대(총장 박진배)는 전라북도 간호조무사회(회장 이선옥) 후원을 받아 6일에 5개국 40여 명의 대상으로 이달 17일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졸업을 앞두고 전주를 떠나기 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전북 간호조무사회 또박또박 봉사단 회원들이 뜻을 모아 준비되었으며, 유학생 형편으로 쉽게 먹어 볼 수 없는 최상급 한우(韓牛) 고기를 정성껏 구워 주며 “기간 전 주에서 지낸 이야기를 나누는 오찬을 가졌다.

중국 유학생 우창(물류무역학과, 4학년) 학생은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에 왔지만, 유학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환경 적응 문제와 가족과 부모님이 보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유학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전주가 떠나고 싶지 않은 고향이 되었다며 졸업 전에 이런 특별한 기억을 선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전주대 홍성덕 부총장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너무나 애를 쓰시고 고생하셔서 그 수고에 감사와 위로로 받으셔야 할 간호조무사님들께서 되려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어 주시니 대학 구성원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나누어주시는 사랑이 되어 해외에서 반드시 꽃 피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국제교류원은 지역 사회와 협력해 범죄예방교육, 의료 서비스지원, 한국어교실, 호스트패밀리, 음악교실, 스포츠교실,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학교가 전북테크노파크로부터 전북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현판을 수여받았다.

##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 양성 본격

### 전주대서 전북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현판식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전북대, 군산대 등 공동 연구개발 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공모사업 선정·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전북테크노파크로부터 현판을 수여 받고, 전북 지역 에너지 전문가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주대 현판식에는 주관기관인 전북 TP 에너지산업육성단 김영권 단장과 전주대학교 대학원 전용수 원장, 전주대학교 사업책임자 김은수 교수와 공동참여 교수와 대학원생 등 총 16명이 참석했으며, 김은수 교수의 전기전자 공학과 전력전자연구실 성과 및 현황, 인제 양성사업 추진현황 등의 발표와 현판 전달이 있었다.

이어 링크사업단과 공동으로 전북 TP 에너지산업육성단 김영권 단장과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정책 발표를 통해 신정부와 전북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 방향과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국비 등 총 81억 8000

만 원을 투입, 주관기관인 전북 TP와 전북도·전주시·군산시의 3개 지자체, 전북대·군산대·전주대 등 3개 대학, 엘에스일렉트릭·오씨아이피워 등 26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 경험을 겸비한 수산태양광/해상풍력/전력변환기술 분야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전주대학교는 전력변환기술 분야를 담당한다.

특히, 김은수 교수는 이번 사업은 지역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비롯한 전북지역 내 에너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3곳의 참여대학에서 5년에 걸쳐 150여 명을 배출해 지역기업에 취업하는 일자리 창출로 에너지산업 기술인력 수급 애로 해소와 고급 인력의 지역 내 정착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라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및 에너지클러스터 조기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